昭和九年四月十四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九年五月一日(每月一回一日)發行

한글

第二卷·第二號
【五月號】
1934

一 값 一
一部 金五錢
六個月 金三十錢
一個年 金五十五錢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二九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우리글의 통일은 오직 이 잡지로

한글 마춤법 통일안 실행에 일치하자

어떠한 사회 어떠한 민족을 물론하고 말이 있으면 반듯이 글이 있고, 글이 있으면 반듯이 하나의 표준이 있어 전체를 통일하는 법이 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글이란 얼마나 지저분하며 갈레가 많은가。이것이 남에게 대하여 크게 수치가 되는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제 스스로도 때때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날 와서는 우리글을 통일하자 함이 전 민중의 절실한 요구이다。오직 이것으로 큰 사명(使命)을 삼는 우리 조선어학회에서는 이미 수십년 이래 끊임 없이 말과 글의 연구를 쌓아오던바, 지금은 위선 마춤법을 정하는것이 급무임을 살피어, 열 여덟 사람으로 조적된 위원이 전후 일백이십 오회의 회합에 그 연장한 시간수로 치면 사백 삼십삼시간이란 실로 공전 의 대회의로써 가장 청확히 조사하며 신중히 처리하여,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작년 한글 기념날로써 우리 사회에 공표한것은 일반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즉 이것이 어느 연구자가 독특히 주장하는바 개인의 사안(私案)이 아니요, 다수한 사람이 장구한 시일에 연구 토의한것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곧 전체를 대표할 통일안이 된것이다。

우리 민중은 이제 이 통일안을 실행하기에 힘을 일치하자。그러나 우리는 일즉 문자(文字)에 대한 교양이 없었다。너무도 우리글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탓으로 재래에 합부로 쓰던 버릇을 고치고 조그마한 제한이라도 받기란 좀 힘들게 될것은 정한 일이다。우리글을 통일하려고 하면 이러한 시기가 어느 때든지 한번은 내 앞에 닥쳐오고는 말것이다。우리는 미리 이것을 자각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며 내지 우리글 통일에까지 힘을 아끼지 말자。

긴—급—동—의

『하는데』냐 『하난대』냐

어떤 예수교 예배당에를 갔더니, 예배식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오날 아참에 하나님 말삼을 하실이는 ○○목사님이올시다』라 하더니, 설교하는 그 목사님 말 가운대에도 역연 『하나님의 아달』이라니, 『쓸어바리다』라니, 『가리친다』라니, 『반다시』라니, 『마참내』라니, 『하난대』라니 하여, 권판 『아』자 투성이다。말의 소리가 부자연한 꼴이다。외국 사람으로 조선말을 처음 배워서 서투르게 말하는것 같이 들린다。웨 그런고 하였더니, 그분들이 성경 책을 많이 읽어 이미 습관이 되었던 탓이다。성경 책에 쓴것을 보면, 우에 그 말들을 『오늘, 아츰, 하ᄂᆞ님, 말슴, 아ᄃᆞᆯ, ᄇᆞ리다 ᄀᆞᄅᆞ친다, 반ᄃᆞ시, 마춤내, ᄒᆞᄂᆞᆫᄃᆡ』로 되었다。이렇게 ᄀᆞ가 된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모두 ㅏ로 고치어 읽었던것이다。

좀 자세히 따져보면 ᄀᆞ란것이 본시 ㅏ와 꼭 같은 소리가 아니다。주시경씨는 ᄀᆞ를 ㅣ와 ㅡ의 간음(間音)이라 하였으니, 곧 ᄀᆞ가 ㅣ에도 가깝고 ㅡ에도 가까운 그 중간 소리라 하는 뜻이다。옛적에는 이 글자의 발음을 잘 내었지마는, 지금은 누구든지 발음을 할수 없는것이다。(권라남도 지방에서는 그와 가까운 소리가 있지마는) 그러나 다만 글자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적 철법(歷史的 綴法)을 굳이 주장하는 성경 책에 많이 씨었던것이다。그런것을 성경을 읽는이들이 ᄀᆞ를 마구 ㅏ로만 읽기 버릇한것이 내종에는 말까지 버려놓고 만것이다。

ᄀᆞ가 한자음(漢字音)에는 모두 ㅏ소리로 화하였거니와, 조선말 소리에는 단순히 ㅏ로만 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의 소리로 변하였으니, 그 소리나는대로 발음하여 말하는것이 마땅할것이다。곧 『오늘, 아침, 하느님, 말슴, 아들, 버리다, 가르치다, 반듯이, 마침내, 하는데』로 발음하여야 하며 글쓸 때에도 이렇게 할것이다。

目次

한글 마춤법 통일안 실행에 일치하자……(1)
『하는데』냐 『하난대』냐……(1)
한글 통일과 보급에 대한 각계 여러분의 말슴……(2)
한글 바루 잡아 쓰기 익힘……(6)
조선일보와 동아일보……(7)
〔새글〕 청구영언……(8)
옛 이야기…(정수동이야기)……(8)
〔동요〕농아사……(9)
〔劇本〕배뱅이굿(二)……金台俊…(10)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二)…沈宜麟…(11)
중등 조선말본 길잡이…崔鉉培…(12)
옛말 찾기……(13)
한글신문……(14)
부질없은 수작……(14)

한자도 빼지 말고 다 읽어주시오

京城鍾路二丁目九一番地

319-2-2(2)=2

한글의 통일과 보급

먼저 대내적 통일부터

延禧專門學校 副校長 兪億兼

조선어학회에서 이미 꺽지 아니한 시일과 노력을 허비하여 마춤법 통일안을 맨들어 놓았으니、우리글은 종당 이것으로써 통일할 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조선어를 연구하는이들 중에서도 그 안(案)에 대하여 종래의 주장이 약간 다른 점도 없지 아니할것인즉、학자의 강경한 주장이 학(學)에 대하여는 충실(忠實)하다고 할는지 모르나、무엇이든지 통일하는대에는 크게 지장이 되는것입니다。혹여 개인 단독의 사에 덜 맞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다수의 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개인의 주장을 희생하는것도 더욱 현명한 일이라 하겠읍니다。그러므로 먼저 대내적(對內的)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협조하여 공동일치한 연후에 대외적(對外的)으로 일반에게 통일을 운동하는것이 순서일것입니다。또 일부에서 그 안에 대하여 비난하는이가 있을는지 모르나、그는 족히 개의할것 없고、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거든 꾸준히 그대로만 매진(邁進)할것뿐입니다。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언어와 문자의 통일이란 그리 얼른 쉽게 되는것이 아니니、너무 단속적으로 바라지 말고 두고두고 힘써가면 필경 성공할 날이 있을줄 압니다。

보급의 방법은 다 아는바로 지금 각 학교에서、신문 잡지에서、서적에서、및 계몽대(啓蒙隊)운동에서까지 많이 통일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으니 이만하여도 널리 보급되었거니와、앞으로도 더욱 많이 보급될것을 믿습니다。이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꾸준한 활동에 있다 생각합니다。

끊든 탑이 문어질리 없다

普成專門學校長 金性洙

문외인이라、긴말 할것 없이 한글 학계의 권위들이 모여서 여러해동안 노력한 결정체(結晶體)로 이루어진 안(案)이니、신임(信任)합니다。공든 탑이 문어질리가 있읍니까。앞으로 더욱 노력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그 안(案)의 보급책은 교육기관、언론기관、출판계를 통하여 사용에 힘쓸뿐입니다。

문맹의 눈을 띄워주자

梨花女子專門學校 副校長 金活蘭

나는 한글 철자법 통일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용탁할 자격이 없읍니다。나 자신이 그 방면에 대하여 아무 권문 지식도 없으니까요。그것은 오직 사계 권문 연구가에 맡기고 말 문케인줄 압니다。그러나 한글 통일이라든지 보급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읍니다。어떠한 사물을 불론하고 통일이 없으면 지리멸렬(支離滅裂)할것이오、지리멸렬 앞에는 멸망이 있을뿐이라고 믿습니다。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한글 철자법 통일안이 발표 됨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의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급 문케에 대하여는 아직도 조선 민중의 다대수가 문맹(文盲)이니까요。그 문맹들의 눈을 띄워 주는 동시에 새로 통일된 철자까지 보급시켰으면 가뜩이나 이중 부담이 많은 우리 살림에 일거양득이 될가 합니다。

말의 통일됨을 따라 모든 운동의 통일을 촉성

崇實專門學校 文科科長 禹浩翊

우리글의 통일안이 우리 사회에 나오게 된것은 참말 그 기쁨을 다 말할수가 없읍니다。우리의 글이 통일됨을 따라서 우리의 말이 통일되고、우리의 말이 통일됨을 따라서 우리 사회의 모든 운동을 촉성(促成)할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안(案)을 속히 실행하고 속히 보급시킬 방법은 먼저 교육기관의 교과서와 언론기관과 기타 종교기관의 출판물이 이 통일안대로 실행하게 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도 조선어 시간과 모든 출판물에 통일안대로 실행하고 있읍니다。

간이화한 철법으로

世富蘭德醫學專門學校長 吳兢善

글이 사회 문화의 요소(要素)요 인생 생활에 이기(利器)가 되는것이므로、어느 나라든지 다 그 글을 소중히여기는것입니다。우리 조선은 우리글의 철자법이 불통일하여 이렇게 혼란이 막심하게 된것은 우리가 지금껏 우리글을 천대하였던 까닭이라 하겠읍니다。지금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통일은 하여야 하겠는데、나의 생각에는 우리글을 재래에 쓰던 역사적 어원(歷史的 語源)의 복잡한 철법을 폐하고、대중(大衆)이 잘 이해(理解)할수 있는 간이화(簡易化)한 철법을 썼으면 통일이 가상 속히 되리라 합니다。

보급에 있어서는 제일로 학교에서 아동교

각계여러분의 말씀

〔재〕

교과서와 성경의 개정으로

監理敎會神學校 學監 金鍾萬

우리글이 생긴 이후 한번도 정리되지 못하였던것을 이제 한글 학자들의 노력으로 통일안이 났으니, 이것이 조선에서 한가지 큰 사업이라 하겠읍니다。그런데 한글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이 이미 이루어진 이 안(案)에 대하여 공동일치로 보조를 가치하여야 통일이 가장 속히 되리라 합니다。

보급책에 있어서는 첫재 교육이니 지금 개정중에 있는 교과서(敎科書)가 얼른 완성되었으면 좋겠읍니다。다음으로 종교계이니 한글을 크게 선전하기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교인즉, 하루바삐 성경(聖經)부터 그 통일안대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강습과 브나로드운동으로

京城保育學校長 獨孤璇

말과 글이 일치하여야겠다는것과 기사법을 통일하여야겠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읍니다。통일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첫재로는 당국이 주가 된 교과서의 통일에서부터 시작할것이요, 둘재로는 조선어학회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글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하려면 지식층을 상대로한 한글 강습회를 자주 열것이요, 무식 대중을 위하여서는 브나로드운동 같은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본래 조선어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맡고부터는 조선어 시간을 두어 한글에 연구가 깊은이를 청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내 자신도 신철자법을 익혀 실행하고 커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위선 자전이 필요

中央保育學校長 車士百

우리가 우리글을 천대한것은 지금 우리 받은 천대와 정비례가 되는줄 압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글을 천대하는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받는 천대가 어떤것임을 깨닫지 못한 무신경한자들이라고 하겠읍니다。이러한 때에 한글 보급과 아울러 정리에 노력하시는분들은 어찌 생각하면 자기 일자기 하는것이매, 칭찬이나 또는 감사할것이 없을것 같지마는, 그래도 남들은 천대 또는 무관심하는데, 모든 정성을 다하는 생명걱 노력을 하시는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감사할는지 말이 없는것이올시다。우리의 할일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속히 보급하며 속히 정리된 철자의 통일을 촉진하여야 하는것인데, 근본걱으로는 자전(字典)을 맨들어서 일정한 표준을 세우고, 선전 방법으로는 학교에는 교과서로, 사회걱으로 온갖 신문 잡지등 인쇄물을 한글 신철자법으로 하는것이 케일 좋을가 합니다。

학회가 중심되어 지도할것

中央高等普通學校長 玄相允

통일과 보급 이 두가지가 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커히 되기 어려운것이외다。그러므로 이것을 국가의 힘이 아니고는 되기 어려운것이외다。그중에도 통일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목하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말하자면 각 교회의 경전과 각 신문 잡지와 학회(學會)가 중심이 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합니다。끝 경전과 신문 잡지를 일정한 어법(語法)과 자법(字法)으로 쓰며, 일정한 학회가 그 중심이 되어 이것을 지도하면 상당한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자를 절대 신뢰하라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長 趙東植

조선 민족의 생명이요 빛이 되는 우리의 말과 글을 우리들이 등한에 붙이고 지금껏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것은 이에서 더 큰 죄악이 없읍니다。조선어학회에서 철자법 통일안을 발표한것은 얼마나 기쁜지 말할수 없읍니다。

우리글의 통일과 보급에 대하여 간단히 한말로써 할것은, 여러 전문 연구가들은 서로 협조하여 일치하게 나아갈것이요, 일반 대중은 그를 잘 이해(理解)하여 나아갈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어법(語法)의 체계를 세우어 완전한 표준을 정하는것은 아무라도 커마다 못하는것이니, 이것은 일체 전문 학자에게 맡기고, 대중은 다만 전문 학자들의 정한바 안(案)을 길대로 신뢰하여 그대로 실행할것뿐이란 뜻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조선어 선생 신명규씨가 사임하게 된것은 학교로서 큰 손실입니다。그 후임으로도 한글에 소양이 있는이를 물색중입니다。

한글의 통일과 보급

적은 고집을 버리고 큰것에 합류하라

普成高等普通校長 金敬弘

한글을 연구하여 보려고 한글 강습에도 여러번 참여다마는, 우리글이 아직까지 얻지 못한것이 여간한 유감합니다。그러므로 이번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마춤법 통일안이 다소의 부족한 점이 있다더래도 우리는 그 안(案)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무조건하고 그를 따르자고 하고싶으며, 우리글을 연구하시는이들도 서로서로 타협하여 꺾은것을 버리고 큰것을 얻기에 노력하여야 할줄 압니다。

통일안을 일반에게 보급하는데 있어서 한글강습회 같은것도 필요는 하겠지요마는, 위선 언론기관과 학교 교원을 중심으로하는 통일부터 먼저 시작하여야겠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조선어를 담임하신 선생이 이방면에 연구가 깊으신분이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읍니다。우리글의 통일은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릴것이 아니고, 오직 조선사람의 뜻을 일치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필가 출판계 교육계의 힘으로

養正高等普通學校長 安鍾元

우리글이 세계 문자 가운데서 그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그 활용이 가장 원만합은 이미 세계에서 다같이 인식하고 있는것이매,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것은 없으나, 그러나 이 글이 한번 생긴 뒤로 이때껏 그냥 내굴려서 한번도 다듬어 본적이 없으매, 오늘날 그 쓰는 법에 있어 혼란 무통일함은 무어라고 말할수 없읍니다。천사람이면 천사람의 쓰는것이 다를뿐 아니라, 한사람이 같은 손으로 쓴것일지라도 어제 쓴것과 오늘 쓴것이 다른 형편인즉, 이러고야 어찌 문화의 발전을 바랄수가 있으리까。하루바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통일된 철자법이 생기기를 바라던 끝에 사계에 연구가 깊은 여러 학자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제 통일안을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게 됨은 우리 문화사상(文化史上)에 큰 공헌인 동시에 그네들의 공적을 감사히 하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일안이 나온것만으로 만족할것은 아닙니다。이것을 실제로 실행하도록 보급시켜야만 비로소 효과가 있을것이니, 이를 보급하자면 먼저 문필에 종사하는이와 출판계에서 착실히 하여야 할것이고, 교육계에서 힘써 가르쳐야 될것입니다。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에 힘을 쓰고 있읍니다。

통일안이 하루바삐 보급되기를

徽文高等普通學校長 李潤柱

한글 통일안은 마땅히 나야 하겠는데, 조선어학회에서 사계의 권위들을 망라하기에 힘을 다하여 여러해동안 안(案)을 이루기에 노력을 다하셨으니, 불론 잘 되었을줄 믿습니다。이미 통일안이 났으니 하루바삐 보급을 시키어야 할터인데, 그 방법은 신문, 잡지 서적할것이 없이 일반 출판물을 다 그 안에 좇아서 내도록 할것이며, 때때로 곳곳에 강습회를 열어서 널리 가르치는것이 제일 좋겠읍니다。우리 학교에서는 그 통일안을 만든 위원중의 한 사람인 이병기씨가 조선어를 가르치시므로 잘 실행합니다。

대중의 교양이 더욱 필요

中東學校長 崔奎東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여러 권문학자의 노력으로 된것이니, 불론 잘 된줄로 믿습니다。그러나 연구에는 한이 없는것이니, 혹 좀 고칠 점이 있을는지 앞으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일안을 보급시키는 방법은 신문 잡지 서적등 일반 출판물을 그 안에 의지하여 내도록 하는것과 각처에 강습회를 자주 열어서 대중을 교양시키는것이 좋겠읍니다。

우리 중등학교에서는 그 통일안 위원중의 하나인 권덕규씨가 조선어 선생인것만큼 통일안을 잘 실행하고 있읍니다。

강습회와 인쇄물로

松都高等普通學校長 金俊玉

보옥 같이 귀한 우리의 글이 엮힌 삼과 같이 되어서 참으로 빛이 없었던것을 다행히도 이에 시간을 쓰시고 심혈을 짜시는 여러분의 공적으로 통일안이 나게 되었으니, 이 안을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단체에나 어디든지 들어가게하야 전조선인의것으로 다시 말하면 민중화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그러므로 경향할것 없이 강습회를 많이 열어서 속속히 보급시키며, 경성 또는 경성 부근은 경성에 있는 회원으로 담임시키고, 지방에는 될수있는데로 그 지방 학교에 있는 조선어

6818076

각계 여러분의 말씀

〔재〕

선생에게 담임시켜서 강습하게 힘쓰며, 일변으로는 조선어학회원을 더 늘여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고향을 맡게 하는것이 좋겠읍니다。인쇄물은 지금 신문과 잡지가 많이 신철자로 된것이 있지만、좀더 각기관에 알선하여서 신철자로 쓰게하고、학생층과 농민층에 적당하게 취미 있게 읽을만한 책을 될수 있는대로 만들어서 제공하는것이 좋을가 합니다。

교과서와 성경 개정으로

成興高等普通學校長 永生女子 **金觀植**

우리글이 통일하여야 할것은 더 말할것 없거니와 이제 발표된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대하여 혹 어떤편에서는 비평하는 일도 있으나 이것이 여러 권문학자들의 신중히 토의하여 이루어진 안(案)인만치 나는 신임하며 더욱 찬성합니다。

그 보급에 대하여는 별 의견이랄것 없이 각 학교의 조선어과 담임 교원에게 사범강습을 개최할것과 국정교과서에 이 안을 채용하도록 건의도 할것이며、예수교회의 성서(聖書)와 찬송가(頌讚歌)등에 한글안을 실행하도록 교섭하며、신문과 라디오를 통하여 가끔 한글 강좌를 여는것도 좋겠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벌서부터 이 한글 철자법을 따라 가르칩니다。

이론을 떠나 종동원으로

培材高等普通學校教務主任 **李庚烈**

우리글의 통일은 더 말할것 없이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의지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를 보급함에 있어서는 첫재 문필가 교육가들이 먼저 깨쳐야 하겠고、신문사 잡지사가 이 통일안을 실행하고、이제부터는 각 종교기관에서 간행하는 성전(聖典) 찬미가 그외 포교기관에서의 인쇄물 전부를 이 통일안에 의지하도록하며、더욱이 부녀들을 가르쳐 가정에서 실행하게 하고、계몽대(啓蒙隊) 지도자를 양성할것등、여러 방면으로 노력할것인데、이제는 이론(理論)을 떠나 총동원(總動員)으로 보급실행에 전력할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글 학설을 근거로한 문법의 통일이 필요

徽新學校 教務主任 **李時雄**

우리글의 통일이 철실히 필요하다 하는것은 더 말할것 없읍니다。통일할 방법에 있어서는 비학리적(非學理的) 자법(字法)으로는 도저히 될수 없고、오직 한글 학자의 학설을 근거로한 문법의 통일이 있어야 하겠읍니다。그를 보급시킬 방법은 의례히 신문 잡지 서적등 출판물을 통하여 철저히 한글 통일안을 실행하게 하는것입니다。그려고 우리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담임한 선생들이 모두 그 통일안에 대하여 전력을 하고 있읍니다。

농촌으로 학교로

眞信女學校 教務主任 **尹琉淳**

가장 합리적으로 된 한글 철자법 통일안이 완성되었으니、이에서 더 기쁜 일이 없읍니다。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는듯 한데、그들이 좀 양보하여 서로 타협하는 편으로 갔으면 좋을것 같습데다。대저 무슨 일이든지 대세에 순응하여 한대로 모이는것이 근본으로 통일되는 도리이니까。

보급책으로는 첫재로 다수인 농민 대중을 교양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고、다음으로 각 학교에서 언어교육에 특히 치중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왕에도 조선어 학과에 범연한바가 아니었지마는、앞으로는 더욱 이에 유의하여 한글의 통일에 노력하고저 합니다。

소학생 표준의 잡지가 필요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 **金智煥**

조선글이 생긴 뒤에 처음으로 난 한글 마춤법 통일안은 한글 학자 여러분이 여러해 동안 힘써 만드신것이니、칠대로 신임합니다。이 통일안을 널리 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마는、특별히 보통학교 생도를 표준하여 교양될만한 잡지를 내는것이 좋겠읍니다。우리 학교에는 이만규씨와 김윤경씨 두분이 그 통일안 위원이 되었으니、그 안을 실행하는데에는 두말할것도 없읍니다。

박물의 명칭도 실행한다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教務主任 **李德象**

한 민족의 말이오 한 민족의 문자임에야 혼란한 기사법을 통일하여야겠다는것은 추호도 의이가 없읍니다。이것을 어떻게 하여 일반에게 잘 보급시키겠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보통학교로부터 중등 이상의 조선어 과목을 담임하신 선생님들의 의견과 힘을 빌어 통일하여야 할줄 압니다。그리고 농촌에 들어가서는 야학이나 서당 같은 기관을 통하여 일반이 잘 알도록 힘쓸것입니다。우리 학교는 한글에 특히 연구가 깊으신분이 두분이나 계시니 더 말슴할것은 없고、내가 관계하고 있는 박물학회에서는 동식물의 명칭등은 모두 신철자법으로 쓰기 작정하였읍니다。

319-2-2(2)=2

글한 바루잡아 쓰기 힘익

그전대로 쓰는것의 잘못을 바루잡아 쓰기를 익히는것이 우리글을 통일하는대에 한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난을 두는것이다。이것을 읽을 때에 그 곁에 바루잡아 쓴것을 깊이 주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염소와 늑대 (동화) 그림

넷날 넷적에 늙은 염소 한마리가 잇었습니다。이 염소의게는 삿기가 닐곱이나 되난대、케 삿기를 귀애함은 맛치 사람의 어머니가 그 아희를 사랑함과 조곰도 달음이 업섯습니다。

어느날 먹을것이 업서젓슬 쎄올시다。늙은 염소난 하난수업시 어린 삿기들을 집에다 떼여노코、자긔난 홀노 숩풀 사이에 먹을것을 차즈러 가게 되얏습니다 어린 삿기들만 집에 두고 가기가 암만 해도 마암에 써림하야 닐곱 삿기를 한자리에 불너안치고 말하기를、

『나난 시방 이 길노 곳장 숩풀 속에 갈터인대 너희들은 늑대를 조심하야야 한다。나 업슬동안에 만일 늑대란놈이 이곳에 오면은、너희들은 가족도 쎄도 안이 남기고 한입에 삼켜바릴것이다。 또 늑대란놈은 넷날브터 변형 잘하기로 유명한놈이니、 쌋닥 잘못하면 큰일이 날것이다。하지만 늑대는 목소래가 쉬고、발이 검기 쎄문에、얼는 보아도 대번 아라낼것이다。』라고 말이 끗나자마자、삿기들은 닐곱 입에서 한거번에

『어머니、걱정 마셔요。어머니 말삼대로 하겟습니다。우리들은 어머님이 돌아 도라오실 쎄까지 집안에서만 놀고 잇슬터이니、그 대신에 맛잇난 음식을 만히 갖다 주셔요。응 어머니!』이러케 떠들었습니다。

이 말을 드른 늙은 염소난 안심하고서 숩풀을 향하야 차좀차좀 차저갓습니다。가면서 암만 생각해보아도 꾀 만코 교활한 늑대란놈이 만일 오면 엇지할가 하지만은、그러타고 또 그만두면 어린 자식들이 모다 배를 줄일터이니、얼는 가서 빨니 먹을것을 차저가지고 오는수 밧긔 업고나 하면서 발빨으게 거러갓습니다。

늙은 염소가 집을 떠나간지 얼마쯤 지나서、누구인지 움막 문을 토닥토닥 두다리면서、

『얘들아! 문을 여러다고。네 어미다 너희들 먹이랴고 맛잇난것을 이러케 만히 가지고 왓다。얼는 여러라。』하얏습니다。

그러나 어린 염소들은 목쉬인 소리를 듯고서、대번 늑대인줄을 아랏습니다。

『안된다、안되여、문을 열수 업다。너는 우리 어머니가 안이다。우리 어머니의 소래난 곱고 아름답단다。늑대여』라고 하얏습니다。

그 쎄에 늑대는 슬금언이 가가로 가서、백목의 커다란 덩어리를 사다가 먹고서、목소래를 유순하게 하야、또 다시 가서 문을 똑닥똑닥 두다리면서、

『얘들아、문을 여러라。네 어머니다 너희들 주랴고 맛잇난 음식을 만히 가져왓다。자、이것 바더라。』이러케 말하엿습니다。

하지만은、늑대가 새캄안 압발을 창문턱에 언저노키 쎄문에 어린 염소들은 또 한번 보고 늑대인줄 아랏습니다。

『안이여、안이지。문을 열수난 업난 걸。열수 업서。우리 어머니난 거러케 새캄안 발이 안이야。너난 늑대다。어림 업난 소래。안 속지、안 속어。』이러구 하얏습니다。

그 소래를 드른 늑대난 절둑절둑하면서 쌍 맨드난 집으로 가서、

『내가 시방 잘못하야 발을 베엿스니、날 쌍을 발나 주시오。』하니까、쌍집에서난 그대로 하야주엇습니다。그케난 분 파는 집으로 가서、

『내 발에 하얀 분칠을 하야주시오』하얏습니다。그러나 분 파는 사람은 이 교활한 늑대가 이 쌔위짓을 하여가지고는 또 누구를 속여먹으랴난가 생각하느라고 어물어물하고 잇자닛가 늑대난

『얼는 쎌니 발나! 안이 발느면 잡아먹을터다。』하고 딱 얼녓습니다。그 쎄에 분 파난 사람은 벌벌 떨면서、늑대가 말하난대로 다리에 분칠을 하야주엇습니다。사람이란것은 그깃치도 겁장이올시다。

고약한 늑대란 놈은 세번재 움막에를 가서 또 토닥토닥 문을 두다리엿습니다

『얘들아、문을 여러라。내다 내여。좀 배가 곱핫것니? 너희들이 조히하난 먹을것을 잔득 가지고 왓다。어서 여러라。팔이 압히서 못 견디겟다。』이러케 말하니까、어린 염소들은 움막 속에서

『발을 보여라。참말 우리 어머니인가 안인가。어디 보자。어서 보여라。』하얏습니다。

그때에 늑대는 음충맞게 슬금언이 두

발을 번갈나(라) 들창우헤(에) 언져(얹어) 노핫(놓았)슴내다。
발이 희닛가(히니까)、염소 삿기(새끼)들은 이만하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고、겁업시(없이) 문을 여(열)
려주엇(었)슴니다。 얼마나 놀나(라)울 일이 안(아)
이오닛가(니니까)。 어머니인줄을 아랏(알았)더니 드려(들어)
온것은 늑대엿(였)슴내다。
어린 염소들은 깜짝(깜짝) 놀나(라)서、한마리
난(는) 겉상 밋헤(밑에)、둘재놈은 벽쟝(장)속에、셋
재놈은 다락 속에、넷재놈은 부억(엌)에、다
섯재놈은 실영(시령) 밋헤(밑에)、여섯재놈은 빨내(빨래)
광주리에、닐곱재놈은 병풍 녑헤(옆에) 다 각
기 다라나서(달아) 숨어 잇섯(있었)습내다。
그래도 늑대는 대번 아라냇(알아냈)슴내다。
조곰(금)도 서슴지 안코(않고) 닥치난(는)대로 한마리
두마리식 다 잡아먹엇(었으)스나、다만 한마
리 가장 어린 염소가 병풍 너머(넘어)에 숨어
잇섯(있었)기 쎄(때)문에、그놈 한마리가 나마(남아) 잇
섯슬(었을)뿐이 엿(었)슴내다。
늑대난(는) 배가 불너(러)지기 쎄(때)문에 어정어
정 나아가서 시펄(퍼런)언 풀이 수북한 목쟝(장)
으로 어슬넝(렁)어슬넝(렁) 거려(걸어)가다가、나무
그늘이 욱으려(우그)진 밋헤(밑에)서 데글데글 둥글
면서 그대로 잠이 드려(들어) 곤하게 한숨을
자고 잇섯(있었)슴내다。
얼마안되야(어) 늙은 염소가 도리왓(돌아왔)난대(는데)、
자! 얼마나 놀낫슬(랐을)까요! 그쎄(때)에 문은
여려잣(열어잦)친대로 잇(있)고、책상 교의 걸상은
모다(두) 허트러지고、부억(엌) 뒷겻할것업시(없이)
모다(두) 난장판이 되야(어)서、밋치(마) 도적놈이
드려왓(들어왔)다 간 뒤 갓핫(같았)슴내다。 아모리(무)찻(찾)
고 소래처(리쳐) 불너(러)도 어린 샛기(새끼)들은 어듸(디)
로 갓난(갔는)지 그림자도 볼수 업섯(없었)슴내다。
한아식(하나) 한아식(하나) 일홈(이름)을 불너(러)도 대답하난(는)
소래난(리는) 드를(들을)수가 업섯(없었)슴니다。 늙은 염
소난(는) 꿈인가 생시인가 스스로 의심하면
서 밋친(미) 드시(듯이) 이구석 저구석으로 도라딘(돌아다)
이면서 울다 십히(싶이) 일홈(이름)을 불넛(렀)슴내다。
막내 삿기(새끼)를 붙으닛가(부르니까)、어듸서(디)언지 모
긔소래(기리)만한 목소래(리)로
『어머니、나 여긔(기) 잇슴내다。 이 병풍
너머(넘어)에 수머(숨어) 잇슴내다。』라난(는) 소래(리)를
듣(듣)고、곳(곧) 그 삿기(새끼)를 쓸어내여(끌어)、처음부
터 지난 일을 차례차례로 모조리(주) 이약(야)
이하게 하얏(였)슴내다。
이 말을 듯든(듣던) 늙은 염소난(는) 말을 듯(끝)까
지 듯(듣)기도 젼(전)에 늑대란 놈의 소위를 생
각하고、니(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목을 노(놓)
코(고) 소래처(리쳐) 우럿(울었)슴내다。 암만 우어(울어)보나
소용이 잇겟(있겠)슴닛가(니까)。 하난(는)수 업시(없이) 늙은
염소는 어린 염소를 압헤(앞에) 세우고 서로
붓잡고 울면서 정쳐(정처)도 업시(없이) 나아갓(갔)슴내
다。(계속)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三월 三十 一일 조간(朝刊) 三면에 굵직한 글자로 『寧日 엄는 長津水電』이라 표제를 붙인것이 있었다。「엄는」이 물론 「업는」의 오식인줄 본연히 알면서도、조선일보는 너무도 우리글 마춤법에 관심을 하지 아니하는 관계로、이러한것도 혹시 일부러 순전한 표음주의(表音主義)로 쓴것이나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동아일보는 四월 二十四일 석간(夕刊) 三면 기사 가운대에는 역시 굵은 활자로 『十年 歷史 갖인 均興學校 閉鎖』라고 쓰여 있다。

「갖인」은 「가진」으로 써야 옳을것인데 그러할 필요가 없는것을 공연히 바침을 남용하는것이 웃으우며、그뿐인가 하였더니、그에서 몇날전 四월 十九일 석간 三면에는 『學費 잃코 自殺』이란 큰 표제가 쓰여 있다。 이것도 「잃고」라 할것을 「잃코」로 쓴것인데、만일 「코」라는 토를 인정할진대 차라리 「일코」로 하는것만 못하다。 너무나 문법주의(文法主義)에 지나치다 하겠다。 폐일언하고 조선일보가 너무 표음주의에 치우치지 말고、동아일보가 너무 문법주의에 치우치지 말고 둘이 절충하여 꼭 법대로 써 주었으면 백배치사하겠다。

한글마춤법통일안

半千年 以來 整理 못되었던 우리글을 朝鮮語學會의 손을 빌어 비로소 마춤법(綴字法)이 完成되었다。全 民族이 統一하게 쓸 표준글은 반듯이 이것에 말미암을것이다。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訓民正音原本

四百 八十 八年前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頒布하시던 그 原本을 寫眞銅版으로 縮刷한것이다。우리글의 근본을 알고저 하는이로는 아니 보면 안된다。

定價 二十錢
送料 二錢

◎注文은 京城 花洞 一二九의 二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 京城壹〇參六番

글새 청구영언 (2)

우조 첫수 한잎

천황시 지으신집을, 요순에와 쇄소러니。한당송(漢唐宋)풍우에, 기울은지 오래도다。우리도 성주 뫼옵고, 중수할가 하노라。

금오(金烏)와 옥토(玉兎)들아, 뉘 너를 쫓니관대。구만리 장공에, 허위허위 다니나니。이후는 십리에 한번씩, 쉬엄쉬엄 다녀라。

남훈전(南薰殿) 달 밝은 밤에, 팔원 팔개(八元八凱) 데리시고。오현금 일성에, 해오민지온혜(解吾民之慍兮)로다。우리도 성주 뫼옵고, 동락태평하리라。

남팔(南八)아 남아 사(死)이언정, 불가이불의굴의(不可以不義屈矣)어다。웃고 대답호되, 공이 유언불감사(有言不敢死)아。천고에 눈물진 영웅이, 몇몇인줄 알리오。金尙憲

동짓달 기나긴밤을, 한 허리를 둘에 내어。춘풍 이불아래, 서려서 넣었다가。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드란, 구비구비 펴리라。

어제 내 일이아, 그릴줄을 모르든가。있으라 하더면, 가

포복절도 옛이야기

첫날밤에 춤추는 색시

—鄭萬壽 이야기—

『여보게 만수! 자네 장가든다지』

『그래, 이놈아。나는 장가도 못든단 말이냐。』만수의 상판은 웃음으로 하여 찡그러붙이며, 흥흥하는 코소리로 첫마디부터 웃는 친구를 핀잔을 주었다。

『압다 그놈! 장가드는것 묻지도 못하란 말이냐。웃으운 놈 다 보겠네。』초록은 동생이요 가제는 게편이라고, 그의 친구도 수얼치 않는자。

『여보게 그런데 할말이 있네。자네가 오늘날까지 잡놈으로 둘재가라면 설어하는터 아닌가。어디 첫날밤에 색씨, 춤 한번 추여 보겠나』

『그것을 못 추여』만수의 대답은 선선하였다。

『그래 추인단 말인가』

『추이다뿐이겠나』

『우리 내기할가』

『자키 좋으리』

『야 이놈 봐라』어이없는듯이 친구는 웃었다。

『보기는 무얼 보아。네 아범 나를 보아』

『에끼 자식。내기는 무슨 내기를 할고』

『한잔 먹는 내기지』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럼, 돈을 태놓지』

『얼마 태일가』

『쉰냥만 하세』엽으로 쉰냥이면 요샛 돈 十원, 그때 돈 十원이면 시방 돈 백원 맞잡이。

『그럼세。그래 가지고 기생마리나 불러서 한번 흥청거려 놀아보세。』

『첫날밤에 우리 신방 밖에 와서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게。추이나 못 추이나』만수는 자신 있는듯이 이렇게 다지기까지 하였다。

친구는 속으로 이놈아 큰 소리를 한다마는 무슨 수로 첫날밤에 색씨 춤을 추인단 말이냐。출출하던 판에 한잔 먹을 보살이 생겼구나 하였다。

× × ×

그 이튿날 만수는 장가를 들었다。서쪽 하늘 붉게 물들이며, 해는 어느결에 가므러지고 말았다。화촉의 휘황한 신방 안에는 벌서 칠보단장이 무르녹은 신부가 부끄러운듯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색씨와 마주 앉은 신랑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나리감은 색씨의 눈이 알수 없는 호기심에 끄들리어 난생 처음 만나는 사내게로 슬적슬적 건너갈 때, 남편의 얼굴이 근심과 걱정에 싸인것을 발견하였다。

과연 만수는 더할수 없이 실망낙담한 사람 모양으로 고뇌의 빛을 얼굴에 나타내며, 때때로 휘휘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쉬었다。

십분! 이십분! 기쁨과 행복이 춤출 신방이 답답함과 염려스러움에 잠기었다。까닭모를 안타까움에 서린 신부의 시선은 신랑의 얼굴 위를 자주로이 오락가락하게 되었다。

문득 방이 둘러꺼질듯이 가슴을 짜내는 한숨을 쉬고 나더니, 만수는 고개를 번적 들었다。그리고 색씨의 얼굴을 뚫어지라고 말끄러미 들여다보고 있었다。색씨는 웬 셈판인지 알길이 없고 한편으론 이상스러우며 한편으론 부끄러움, 일없이 가슴을 두군거리며 뺨을 태우고 있었다。

이윽고 만수의 고개는 다시금 숙으러지며 혼자 중얼거리는 말

『그릴리가 없는데……암만해도 그릴리가 없는데』또 한동안 답답한 침묵。또 한동안 날카로운 잉시(凝視)。이러기를 거진 두시간이 넘도록 되풀이하였다。

색씨의 보드랍고 연한 가슴은 오뉴월 상한 고기에 구더기 끓듯, 가진 의심이 마디마디 애이고 있었다。저냥반이 무슨 걱정을 저렇게 하나? 저 알금삼삼한 고운 얼굴이 기쁨 웃음에 피어질 물건이 있다 하면, 아무리 비싼 값을 줄지라도 아깝다 않으련만! 무슨 일인가。도대체 물어볼가。

연지가 붉게 흐르는 색씨의 입술은 곰실곰실 움즉이었으되, 앞을 막는 수접은 마음에 그릴수도 없는 일。속시원하게 말이나 하여주었으면, 내야 여자니까 부끄러워 못 묻지만, 사내냥반이 되어서 저다지 조부심을 하면서 웨 말을 못하는고。

색씨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때였다。만수는 또 한번 색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 홀로 넋드리를 시작하였다。

『그릴리가 없어……암만해도 그릴리가 없어。그들이 거짓말이지。에잇 고약망칙한 놈들! 메다부쳐 죽여도 시원ᄒᆞ지 않은 놈들…(꿈꾸는듯이 눈을 머언하게 뜨며)그때는 좋기도 좋았다。기쁘기도 기뻣다。매파(媒婆)의 그 말을 들을 때에 과연 하늘에 오르는듯하였다。땅 밑으로 빠지는듯하였다。——인물도 좋을시고 거래도 좋을시고 멀리 보면 달이런가, 곁에 보면 꽃이런가, 여공침수(女工針繡)에 빠질것 바이 없고, 봉상솔하(奉上率下)에 거칠것 바이 없고, 가문 좋고 지체 좋고, 재주 있고 덕성 있고, 베고픈이 밥 잘 주기, 헐벗은이 옷 잘 주기, 태임 태사(太妊太姒) 그 뉘신고 이보담 지낼손가。왕장 서시(王墻西施) 곱다 한들 이에야 따를손가。그 매파 할미장이 인심도 좋아。이렇게 죽 섬길적에 참말이지 내 마음은 어떻게 기뻤든지 뛰고도 싶고 날고도 싶었것다。하루바삐

랴마는 제 구태어。보내고 그리는 정은、나도 몰라 하노라。

眞伊

두수 한잎

이러들 어떠하며、저러한들 어떠하리。만수산 드렁칡이、얽어진들 어떠하리。우리도 이와 같이 얽어져서、백년까지 하리라。太宗大王

이 시렴 부대 갈다、아니 가든 못할소냐。무단히 네 싫더냐、남의 말을 들었느냐。그래도 하 애닯고야、가는 뜻을 일러라。成宗大王

청강(靑江)에 비 듣는 소리、그 무엇이 우읍관대。만산 홍록이、휘드러 웃는고나。두어라 추풍이 몇날이리、우을대로 우어라。孝宗大王

청석령(靑石嶺) 지나거라、초하구(草河口) 어디메뇨。호풍도 참도 찰사、궂은 비는 무삼 일고。뉘라서 내 행색 그려다가、임 계신대 드릴고。同上

조천로(朝天路) 보이단말가、옥하관(玉河關)이 뵈단말가。대명 숭정이、어디러로 가단말가。삼백년 사성대신(事誠大信)을 못내 슬어하노라。同上

아까야 사람 되어 왼 몸에 깃이 돋쳐。구만리 장천에 푸드득 솟아 올라가서。임 계신 구중궁궐을 굽어볼가 하노라。

택일해내 사주단자 보냈으니、혼인할 날자야 단 며칠이 못되건만、나에게는 그동안 여러 십년이 되는듯 하였것다。손곱아 기다리던 오늘이 닥칠제 뛰던 내가 이야 말할것도 없지。사모관대하고 마상에 오를 때엔 어깨이 절로 나왔것다。말 가는것은 더디고、마음은 앞으로 앞으로 쏠려져 몇번이나 말 목을 안고 떨어질번 하였것다。처가 골목통이를 돌아들어、두 집만 지나면 처갓집 문턱에 다다를 때에、동네 아이놈들이 우우 몰려나오더니 나를 손가락질하며 하는춤말이 『에헤、저 신랑 봐라。다리 병신 팔 병신한테 장가가면서、무엇이 좋아서 빙글빙글한담!』이 말을 듣고나니、하늘도 문어지고 땅도 꺼지는듯 하였것다。당장 말고삐를 돌리려 하였으나、뜻같이 아니되어 오기는 왔지만 만일 그렇다면 이런 놈의 팔자가 어디 있을가……그래도 그렇지 않아、그놈들이 거짓말이지、얼굴이 저렇게 어여쁘고야 병신일리 만무하지。암만해도 그럴리가 없지……하나 이 동네 사는놈들이 그것 저것 모를리가 없겠고、나하고 무슨 대천지원수가 졌다고 거짓말이야 할리 있나……이런 놈의 팔자란!』넋드리를 마치고 만수는 다시금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말을 들은 색씨는 얼굴이 무르락붉으락하였다。원 세상에 기막힌 일도 있고는 볼일이다。생때로 나를 병신이라고。어느놈이 그랬는지 고놈은 때려죽여도 시원찮겠구먼。이 변명을 어떻게 하나。내가 아무리 그러찮다 하여도 저냥반이 곧이듣지를 않겠지。어찌하면 좋아。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 팔 다리를 내어 밀고 저냥반한테 만져보라고 할가? 애닯은 일도 있다。원통한 일도 있다! 색씨는 두뺨이 새빨개지며、속에서 자아오르는 애닯음을 참노라고 애꾸지 연붉은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제야 만수는 어지간히 되어 간다고 바싹 신부 곁에 다가 앉았다。

『여보! 우리가 만나기는 오늘이 처음이오마는、백년이 다진ᄒᆞ도록 가치 살 우리가 아니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고、파뿌리 묵사발이 되도록 한 요위 한 이불자락 밑에 살아갈 우리가 아니겠소。그런 다음에야 서로 기일것이 무엇이며、꺼릴것이 무엇이겠소。』라고 전제를 두고는 아까 제가 넋드리한것마따나、매파가 자기 집에 와서 색씨 칭찬하던 일、고대고대하는 오늘이 와서 기쁜 마음을 것잡지 못하며 말을 타고 오던 일、처갓집을 두 집 남겨두고 동네 애의 그런 불길한 소리를 들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을적에 나의 마음기 어떠하였겠소? 생각을 해보구려。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고 그 애놈들이 나를 속인줄 알기는 알았소。그러나 어쩐지 마음이 풀리지 않는구려。아까도 말하였거니와、우리가 백년을 가치 살 사람이니、물론 당신이 병신이 아닌줄은 모르는바 아니오。그렇지만、나의 의심을 쾌히 좀 풀어주구료。일어나서、왼 팔도 펴보고、오른 팔도 펴보고、왼 다리도 쳐들어보고、오른 다리도 쳐들어보시오』

어찌하면 이 애닯음과 원통을 풀어볼가 처음 만나는 남편의 찡긴 눈섭을 펴볼가 하는차에 이 말을 들은 색씨는 벌떡 일어섰다。소매 자락을 떨치며、두 팔을 오그렸다 폈다 하였다。흥상을 거듬거듬、외씨 같은 발을 번득이며、왼 다리를 쳐들기도 하고、오른 다리를 쳐들기도 하였다。

정만수는 색씨의 이 거동을 빙그래 웃고 바라보면서 웃슥웃슥 어깨춤을 추며、장단을 맞후고 있었다。—떵、떵、떵더꿍—

× × ×

그후 만수는 내기맺은 친구로부터 한잔을 톡톡히 빼앗아 먹었다。(끝)

—동◇요—

농아사(弄兒詞)

첫재

동무야 동무야 나무가세。배 아파 못 가겠네!무슨 배? 자라배! 무슨 자라? 업자라! 무슨 업? 솔업! 무슨 솔? 청솔! 무슨 청? 대청! 무슨 대? 왕대! 무슨 왕? 임금왕! 무슨 임금? 나라 임금! 무슨 나라? 컨나라! 무슨 컨? 놋컨! 무슨 놋? 구리놋! 무슨 구리? 통방구리!

둘재

저건너 저건너 있는게 무언구? 밀물(물이 난 목쟁이)! 밀물은 세이니! 세이면 할아버니! 할아비는 등 곱은이! 등 곱으면 길마까치! 길마까치면 네궁기니! 네궁기면 옹시루니! 옹시루는 검으니! 검으면 까마귀니! 까마귀는 너프르니! 너플너플한다는 뜻인것) 너플면 무당이니! 무당은 두드리느니! 두드리면 대장(大匠)이니! 대장은 집느니! 집으면 게(蟹)니! 게는 구멍에 드느니! 구멍에 들면 뱀이니! 뱀은 무느니! 물면 범이니! 범은 뛰느니! 뛰면 베룩이니! 베룩은 붉으니! 붉으면 대추니! 대추면 다니! 달면 엿이니! 엿은 먹으면 입겁에 붙느니! 붙으면 내 첩이라!

劇本

배뱅이굿

(平安道民俗劇)

金台俊

제四막 배뱅이집, 굿마당

배뱅이 집 뜰에는 벌서 몇 시간전부터 열 두 무당이 와서, 제금 장고를 치면서 무어라고 푸념을 하고 있었다。물론 안팎에 관중이 가득 찼다。총각은 와닥닥 뛰어 굿마당으루 들어가면 공수(呪文)를 디운다。

총각(손을 들고 춤을 추며) 『오호니야ㅣ 오늘날에는 우리 엄매가 나 죽었다고 무당이 다리를 갈라준다고 하기에 기밑이레 박사에 실려온다』(양손을 다시 벗적 들면서 부모 찾는 형상을 한다) 『엄매야! 아배야! 다 어디 갔늬』

관중一、『뎌게 웬 고약한 놈이 들어와서, 덜어네』

관중二、『뎌 고약한 놈 봐라』(땅을 구른다)

총각 『오호니야! 엄매야 엄매야 암만 그래 봐라。죽었던 배뱅이는 오늘날 다시 왔다。』

관중三、『야거 이상하다。세상에는 대체 희한한 일도 많아。데게 배뱅이 죽은줄두 알디 못할텐데、배뱅이가 살어 왔노라니、한번 딤맥(시험)을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 관중들속에서 쓰고 있는 갓 열하나를 모아서 쌓아놓고、읫 밑에 죽은 배뱅이 아버지의 갓을 네여 놓았다)

『네가 만일 베뱅이가 과연 왔으면 배뱅이 아버지 쓰던 갓을 이 속에서 골라(選)내라』

총각(춤을 추고 돌아가다가 거기 있는 갓에서 칫 한닙을 발에 걸어서 쳐들었다가 다시 탁 눌러 쭉으러트린다)『이 갓은 뉘 갓이냐』

관중들(모두 자기 갓을 쭈그릴가봐、겁이 나서 커 갓을 각각 찾아 간다。)

『이 갓 다 버리겠구나。』

(거기는 배뱅이 아버지 갓만 남았다)

총각(그 남은 갓 하나——청말 배뱅이 아버지 갓——를 들고 춤을 추면서)『오호니야! 마후니야 이게 우리 아버지 갓이로구나。엄매야、내가 죽을 꿈을 꾸었노라고 할적에는 청말로 곧이듣지 않더니、나는 청말 죽었구나。』

배뱅이 어머니(눈물을 흘리면서)『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죽을 꿈을 꾸구 죽었단말이냐。』

총각『엄매야、엄매야、나는 명이 그까지 되어서 죽을 꿈을꾸구 죽었다。엄매야 엄매야、나 죽은 한이란말구 부대 평안히 질 살아라。』

배뱅이 어머니(흑흑 느껴서 괭괭 뎌울면서)『얘 이게 집년아、왜 방정맞게 죽을 꿈을 꾸구 죽었단말이냐。』

총각『엄매야、엄매야、나 죽은 한일란 일체 말어라。나는 인제 죽어뎌서 활딕고개 불딕고개 가는데、열두 사지들이 인청달라 뻠을 디니、할수 없어서 품에 품은 백지 한댱 삼칠지에 말아 내어 수표하야 주고 갔더니、엄매야、인청이나 주게 돈이나 좀 다우。』

배뱅이 어머니『그커 너가 지고 싶은대로 가지고 니가라。』

총각『엄매야 엄매야、내해내 본컨대로 찾아가지고 가겠다。』

『그럼 내 예물 받은건 다 어드켔늬。』

배뱅이 어머니『이년어계집년아、내레 네것 하나 손끝만큼도 다티디 않었다。네해 네해대루 둬 퉜다。뎌 샛방 농 두지뻴함에 너둬 둔대로 있다。』

총각(배뱅이 쓰던 농에 가서 배뱅이 쓰던 다리 두 쌍을 내어놓고)『엄매야 엄매야、그건 그러하나、원앙이 같은것 도끼 같은것 침통 같은것 다 어드켔늬。』

배뱅이 어머니『네해 네대루 너둔대루 두퉜다。샛간 농에 역시 네두었다。』

총각(농에 가서 패물을 가져다가 상우에 놓고)『엄매야 내 옷커고리 옷치마 다 어드켔늬。』

배뱅이 어머니『것두 네해대루 퉜다、샛간 농에 두어 퉜구나。』

총각(또 농에 가서 커고리 치마를 가져다 상에 놓고)『오호니야! 세울내 네울내 댄기던 동무님네、다 오너라。죽었던 배뱅이가 박사계 실려서 오늘날 와서、다시 한번 세울래、네울래 만나보구 가겠구나。』

동리 처녀一、『뎌런 무드럭 총각놈에게 맨커보이겠네。얘 우리 슬근슬근 다 가자。』

(하나 둘씩 세서 가려고 한다)

총각『오호니야! 이달이 훌러가고 나는 달이 솟아올적에 나희 어드래 머리가 아프댈적엔 말이 없으리로다。』

동리 처녀二、『그럼 가서 만나 보고 가자。』

동리 처녀三、『그럼 그러커자』

동리 처녀四、『됴태는데로 하자구나。』

동리 처녀一、『야、배뱅이 온것이 분명하구나。배뱅이가 분명 왔거들란、오늘 커녁 즐거이 놀다 니가라。』

총각『오호니야! 나는 죽을 꿈을 꾸구 죽었거니와、너는 백만년이나 무량히 잘 살어라。세울내 네울내 다 니는 동무들 다 오나라。내 죽은 배뱅이가 다리(月子)는 뭐에 쓰며、패물은 뭐에 쓰며、옷커고리 옷치마는 뭐에 쓰랴 세울래 네울래 단니는 동무들아、다들어서라。다리도 너다 가져니가라。옷커고리도 옷치마도 옛다 너두 하나 너두 하니』(패물、커고리、치마를 하나씩 다 돌려준다)

『오호니야! 그것은 그렇거니와、엄매야 엄매야。지부황천(地府黃泉)에 들어가본 즉、돈이 발라 못 살겠구나。나의 소원은 한가지 있다。돈 몇 만량을 한다하는 상등말에다가 지부황천으루 실려 주려므나。』

배뱅이 어머니『너 쓰구싶은 대루 쓰라므나。』(하인을 불러 양마(良馬)에다 돈몇만량을 실어 박사에게다 보냈다。』(총각은 말을 몰구 간다。유모에게두 조금 주고)

(끝)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

——(二) 沈宜麟——

一、**敎材** 「十、나비 나비 오너라。 노자 노자 나 하고。」

二、**敎材觀** 文學的 敎材로 보는데、아이들이 따뜻한 봄날 풀밭에 나와서 놀 때에 나비들이 춤을 추며、꽃을 찾어 돌아단기는 아름다운 모양을 보고、美에 어려서 자긔들도 한 나비가 되여、같치 놀자고 부르는 自然의 노래다。이 글을 읽힘으로 因하야 봄날의 들의 景致며 이 아이들의 氣分을 잘 맛보게 하여야 할것이다。

봄날을 當하니 날은 따뜻하다。草野에는 生氣잇는 풀싹이 뾰죽뾰죽 나오기 시작하야 어느덧 밈둘레며 오랑캐꽃은 곱고 아름답게도 여긔 커긔 피엿다。그뿐이랴 이것 커것 할것업시 모든것이 모다 새로운 氣運이오 새로운 精神이 난다。이때에 더구나 活動性이 만은 아이들이야 말할것도 업다。엇지 집속에서 가만이 잇슬것이랴。들의 풀밭을 찾어가서 봄 景致를 맛보며、꽃을 親하고、나비를 동모삼으랴함은 當然한 일이다。이 나비노래를 읽을 때는 이 近景을 눈앞에 노코 봄 氣分을 感歎하게 되여야 한다。

이 노래를 단순하게 아이들의 한 작난으로 여겨서 나비를 속이고 피여서 붓잡으랴 하는 뜻으로 取扱하여서는 이 글의 生命을 죽이는것으로 안다。

「나비 나비、노자 노자」하며 거듭 말한것도 나비를 어듸까지든지 사랑스럽게 한 동모와 같치 보아서、이와 같치 말 뜻을 강하게 한것이다。그리고 「나비야 나 하고 노자 오너라」가 보통말의 順序이지만、본문과 같치 말의 前後를 바꾸어 쓴것은 노래를 쓰는데의 한 形式이다。

1、**揷繪의 內容과 練習할 말의 材料。** 봄날 아이 넷이 풀밭에 나와서 놉니다。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다리고 정다웁게 놉니다。잔듸풀은 파릇파릇하게 나왓는데、밈둘레꽃은 황금송아리 같치 여긔커긔 보기 조케 피엿습니다。나비들은 질거워서 춤을 추며 날러서 돌아단깁니다。아이들은 손을 들어 나비를 반기며 같치 놀자고 듯기 조케 노래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2、**新語**……나비、노자(놀지가 줄어서 된말)、나하고

3、**補充語**……봄、들、잔듸、풀밭、쏵、밈둘레꽃、산、구름、노랑나비、흰나비、호랑나비、춤춘다、날개、수염、

4、**新字**……비、노、하

비……筆順(내려긋고 또 내려긋고 건너긋고 또 건너긋고、바른편에다 가 길게 내려긋는다)。劃數(다섯획)、部分名稱(비읍자 바른편 옆에 잇자를 쓴다)

노……同方法(니은자 밑에 옷자를 쓴다)

하……同方法(히읏자 바른편 옆에 앗자를 쓴다)

三、指導方法大要 (三時間 取扱)

1、**揷畵에 對하야 直觀的 問答。**

問、이 그림은 무엇하는 그림인지 자세히 보고 이야기하야 보아라。

答、自由로 各其 생각한것을 아는대로 發表시켜 본다。

2、**揷畵中 部分的 問答과 補充語의 指導。**

問、이것이 무엇이냐。또 이것은……이것은 무엇을 하니。또 이것은 엇더케하고 잇니。또 이것은 무엇을 하는것이냐。엇더케 보이니。……

答、人物、場所、景致、꽃과 나비、活動하는 近景에 對하야 對答한다。

對答이 不充分할 때는 補充하야 주고 또 練習을 시킨다。그리고 發音과 語調等에 注意하야 잘 고쳐 주고 바루잡어야 한다。

3、**揷繪에 對하야 總括的 問答。**

問、언제 누가 어듸서 무엇을 보고 엇더케 하는 모양이냐。

答、봄 따뜻한 날 아이들이 들에 나가 풀밭에서 노는데 나비들이 꽃을 찾어 이리커리 춤추고 단기는것을 보고 아조 어엿부고 아름다워서 같치 놀자고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올시다。

4、**本文을 읽는 法의 指導。**

試讀……누가 한번 읽어보겟니。

(自己 힘으로 읽게 하야 보다。)

範讀……내가 읽을게 잘 책을 보고 잘 들어라。

(讀調와 發音에 特히 注意하야 읽혀 들린다。)

伴讀……내가 읽는대로 다 같치 말아 읽자。)

指名讀……누가 읽겟니。너 한번 잘 읽어보아라。또 누가 더 잘 읽겟니。……

5、**新語의 읽는 法과 쓰는 法 指導。**

「나비、노자、나하고」의 綴字法 觀念을 正確히 알릴것。

6、**新字의 書法 指導。**

「나、노、하」字의 運筆과 順序며 部分名稱等에 對하야 正確히 알기까지 練習。

7、**全文의 書取 練習。**

視寫、聽寫、暗寫等의 練習을 시키되 分別書法이며 句讀點의 注意할것。

8、**應用的 書取 練習。**

前에 배운 字를 가지고。

「나비 나비 어서 이리 오너라。나하고 노자 노자。」

9、**揷畵에 對하야 總括的 發表와 노래에 對한 感想 發表。**

(그림에 나타난 네ㅣ마와、노래를 읽고 엇더케 여기는지。)

중등 조선말본

길잡이

崔鉉培

「한글」을 편집하시는 이선생께서 조선말본의 초보를 아주 쉽게 강설을 하라는 부탁을 받고서, 실제로 해보려고 붓을 잡은즉, 결국은 나의 「중등 조선말본」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보다는 「중등 조선 말본」을 가지고 조선 말본을 공부하거나 가르치거나 하는이에게 도움이 될만한 참고의 말을 함이 좋을가 하여、이러한 이름을 붙이고 그 책에서 주석(註釋)을 요하는것들을 뽑아내어서 아주 평이한 풀이를 보태고저 합니다。 그리나 그 책을 가지지 아니하신분에게도 읽기에 아무 상관 없이 이해되도록 하였읍니다。

모도풀이 (總說)

一、말。 사람의 생각을 소리로 나타낸것을 말이라 한다。

사람의 생각은 본대 소리도 없고 꼴도 없어、도모지 바깥에서 감지(感知)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감지할수 없는 사람의 맘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남에게 전달하려면 반듯이 어떠한 감지성(感知性)을 띠게 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기 위하야、그에 감지성(感知性)을 줌에는 두가지의 방도가 있나니、하나는 그것에 꼴을 주어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것이요、다른 하나는 그것에 무슨 소리를 주어서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것이다。 눈짓、안색、몸짓、그림 글자 따위로 생각을 들어내며、혹은 미개인(未開人)이 조개껍질을 차며 또는 노끈을 매어서 생각을 들어냄과 같은것은 다 꼴도서 우리의 눈을 거쳐서 생각을 전달하는것이요 음악(音樂)으로서 음성(音聲)으로서 생각을 나타내는것은 곧 소리를 주어서 사람의 귀를 거쳐서 생각을 전달하는것이다。 학자를 따라서는 말이란것의 뜻을 아주 넓게 잡아서 사람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을 죄다 말이라고 뜻 매기는이가 없지 아니하지마는、나는 여기에 말의 뜻을 보통의 뜻과 같이 좁게 잡아서 소리로 말미암아 생각을 나타내는것만을 말이라 하였다。 사람의 소리는 사람이 몸을 기르기 위하야 빨아 들였다가 배앝는 공기를 이용한것인데、그 소리냄에 쓰는 여러가지의 틀도 대개는 다른 소용을 겸해하는것들이니、참 신통한 조화의 묘기라 할만하니라。

그러나 다시 엄밀히 살펴보건대、소리로써 사람의 생각을 들어내는것 가운데에도 말이라 할수 없는것이 있다。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따위의 격렬한 정서(情緖)에 따라내는 고함소리 같은것은 확실히 생각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마는 말이라 고는 할수가 없는것이다。 말이라 하는것은 그 소리와 뜻이 다 마디마디가 있어야 한다。 곧 마디 있는 소리로써 분석적(分析的)으로 생각을 들어낸것이라야만 한다。 소리의 마디됨(有節化)은 새집승에게도 있지마는、생각의 마디됨은 새집승에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다。 이 컴이 사람과 새집승과의 중대한 다른 컴이라 할만하다。

말은 한 쪽에는 뜻을 가지고 다른 쪽에는 소리를 가졌다。 그러나 뜻이 곧 말이 아니요 소리가 곧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학문과 소리를 연구하는 학문 밖에 따로 말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또 말은 뜻과 소리를 가졌다。 그러므로 생각과 소리는 말의 연구에 또한 필요한것이 안 될수 없음도 칠로 환한 일이다。

二、글。 말은 어두운데서나 장벽을 격하여서나 자유스럽게 생각을 들어내는 편리한것이지마는、공간적으로 널리 퍼지지 못하며 시간적으로 오래 전하지 못하는 결컴이 있다。 더구나 어려운것을 여러번 반복해서 그 뜻을 잡는 편의가 없다。 이러한 결컴을 깁기 위하야 만들어낸것이 곧 글이라。 글은 사람의 생각을 어떠한 꼴로써 들어내어 눈에 보이게 한것이다。 우리가 옛 사람의 생각을 알며 세계의 생각을 널리 세계에 펴며 길이 뒷 세상에 전하는것은 오로지 이 글의 공로이다。 유성기、라디오가 발달된 오늘날에서도 글의 공용은 결코 줄어지지 아니할것이다。 도틀어 말하자면 사람겨레가 오늘과 같은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것은 거의 글의 은덕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겠다。

글은 그 발달의 자취를 보건대、처음에는 물형이나 생각을 직접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려 하던것이 점차로 말의 소리를 그려내는 표로 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겠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백가지의 세계의 글자를 크게 갈라서 뜻글과 소리글과의 두가지로 할수 있다。 만약 더 가늘게 본다면 뜻글에도 순전히 그림체(繪畵體)로 된것(古埃及의 히에로글리프와 이제의 아메리카의 멕시코의 토인(土人)들이 쓰는 글과 같은)과 상형체(象形體)로 된것(埃及의 히에라틱과 支那의 漢字의 大部分과 같은)과의 두가지가 있으며、소리글에도 또 한자 한말인것(漢字의 六書의 諧聲이란것과 같은)과 한자 한낱내(一字一音節)인것(가나—假名—와 같은)과 한자 한소리인것(西洋의 로마글자、우리의 한글과 같은)과의 세가지가 있다。 그런데 뜻글보다 소리글이 더 발달된 글이요、소리글에서도 한자 한소리인것이 가장 발달한 글이다。 그런한즉 우리의 한

글은 세계의 글가운데에도 가장 발달한것에 든다。그런데 서양의 로마자는 근본은 상형글(象形文字)에서 점차로 발달해 온것이로되、우리의 한글만은 이조 제사세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손으로 아예부터 한자 한소리의 소리글로 만들어진것이니라。

글은 원래 사람의 생각을 끌도 들어내어서 눈에 보이게 한것인즉、귀사람의 생각을 소리로 들어내어서 귀에 들리도록 한 말과는 서로 마주서서 생각들어내기의 두가지의 딴길을 대표한것이다。그러나 글이 오늘과 같은 훌륭한 구실을 하게 된것은 그것이 생각을 꿀만들기(形象化)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나아가아 말을 나타내는 표로 된때문이다。그리하여 말이 으뜸이요 글은 그의 붙음(從屬)이 되는것이다。우리가 글만을 중하게 보고 말은 가볍게 보는것은 일종의 잘못이니라。

그러나 다시 생각하건대、아무리 소리글이라도 그것은 글이지、말 그것은 아니다。그것은 다만 말을 만들어 있는 소리를 대표함에 지나지 아니한것이다。글은 결코 말의 소리를 일일이 꼭 그대로 적어 들어내는것은 아니다。우리의 말의 소리는 수없이 다름이 있어 도저히 그것을 일일이 꼭 그대로 적을수 없을뿐 아니라、설령 적을수 있다 하더라도 번거롭기만 하지、별로 큰 소용이 없는것이다。그러므로 어느 나라를 불론하고 그 말의 뜻을 나타내기에 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에서 그 소리를 몇 가지로 크게 가름하여서 그것을 대표하여 적는것이 곧 소리글이다。그러므로 소리를 또박또박 그대로만 적는것이 글의 이상(理想)이 아니다。이는 말과 글을 갈이하는(硏究하는) 사람들의 깊이 기억해 두어야 할것이니라。

三、월과 낱말

낱말이 모여서 월이 된다는것은 얼른 아무 의심이 없는 밝은 일이라 할것이다。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여기에도 문제가 적지 아니하다。그리하여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도리어 그와 반대로 월이 먼저 있고 낱말은 그것을 쪼개어 낸 결과로 생긴것이라 한다。미개인(未開人)의 말을 조사해 보면 그 말이 한 뭉둥그려진 생각을 한덩어리의 말로(곧 월로) 나타내어 그것에서 낱말을 찾을수 없다 한다。이는 말을 연구하는 사람만이 이런 소리를 하는것이 아니라、생각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판단이 표상(表象)이나 개념(槪念)보다 앞선다 한다。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말에서 얼마큼 터득할수 있는것이다。

四、낱말

낱말은 월을 분석한 결과로 된 말의 낱덩이(單位)이니、말본을 연구함에는 항상 이 말의 낱덩이 곧 낱말이 그 기초가 되는것이다。조선에는 아직 대중말본(標準語法)과 말광(字典)이 완성이 되지 못하였기때문에 아직도 낱낱의 낱말이 확립되지 못한것이 많다。낱말을 확립함이 말본의 한 중요한 구실이다。

낱말은 말본에서 다루는 말의 낱덩이(單位)인즉、생각의 낱덩이(單位)와 하고는 꼭 같지는 아니하다。이 두가지는 어떤 때에는 일치하지마는 어떤 때에는 일치하지 아니함도 있다。이를테면「사람」이란 말은 그 생각과 일치한 낱덩이(單位)이지마는「그림의 떡」이란 말은 말로서는 여러 낱덩이이지마는 생각으로서는 한 낱덩이임과 같은것이다。그러므로 낱말은 생각의 낱덩이(單位)가 아니요、말의 낱덩이이다。우리말의 토와 같은것은 생각으로서는 완전한 독립성이 있는 낱덩이라 하기 어렵지마는 말로서는 확실히 한 낱덩이가 되는것이니라。그리하여 말본에서 한 낱덩이로서의 다룸(取扱)을 받는것이다。

옛말찾기

(二回) 龍飛御天歌에서 (1)

【불휘】 뿌리(根)。『불휘기픈남ᄀᆞᆫ』二장
【뮈다】 움즉이다(動)。『ᄇᆞᄅᆞᆷ애아니뮐씨』二장
【ᄀᆞᆫ씨】 ᄀᆞᆫ세(土)。『뭇씨』『그츨씨』二장
【곶】 꽃(花)。『곶됴코』二장
【여름】 열매(實)。『여름하ᄂᆞ니』二장
【하다】 많다(多)。『여름하ᄂᆞ니』二장
【믈】 물(水)。『시미기픈므른』二장
【ᄀᆞᄆᆞᆯ】 가물(旱)。『ᄀᆞᄆᆞ래아니그츨씨』二장
【일다】 이루다(成)。『내히이러』二장
【바ᄅᆞᆯ】 바다(海)。『바ᄅᆞ래가ᄂᆞ니』二장
【ᄉᆡ】 사이(間)。『狄人ᄉᆞᄉᆡ리예』四장
【ᄠᅳᆮ】 뜻(志)。『하ᄂᆞᆯᄠᅳ디시니』四장
【ᄀᆞᆯ외다】 대적하다(對敵)。『野人이ᄀᆞᆯ외어ᄂᆞᆯ』四장
【ᄌᆞ】 가(邊)。『漆沮ᄀᆞᄉᆡ』五장
【니ᄅᆞ다】 이르다(至)。『後聖이니ᄅᆞ시니』五장
【ᄉᆞᆸ】 옵、습(존경의 토)。『보ᄉᆞᆸᄂᆞ니』五장
【맛ᄃᆞ다】 맡다(任)。『마라ᄒᆞᆯ맛ᄃᆞ시릴씨』六장
【붉다】 붉다(赤)。『블근새』七장
【믈다】 물다(咬)。『그를므러』七장
【잎】 문(戶)。『寢室이페안ᄌᆞ니』七장
【즘개】 조심(兆朕)。『즘갯가재 연ᄌᆞ니』七장
【올】 흙(토)。『聖孫을내시니이다』
【ᄇᆞ얌】 벰(蛇)。『ᄇᆞ얌가칠므러』七장
【엳다】 얹다(置)。『즘갯가재연ᄌᆞ니』七장
【ᄀᆞᆯ히다】 가리다(擇)。『太子ᄀᆞᆯ히샤』八장
【몯다】 모우다(會)。『四方諸侯몯더니』『西夷ᄯᅩ모ᄃᆞ니』九장
【오라】 오래(久)。『聖化오라샤』九장

★ ★ ★

한글신문

부인 한글 강습회
신가정사의 주최로

한글을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부녀계에 새 마춤법을 보급시키기 위하여, 잡지 신가정(新家庭)사 주최로 지난 三월 二十 三일부터 동 二十 八일까지 동아일보사 三층 대강당에서 부인 한글 강습회를 열고 신명균, 김선기, 이윤재 三씨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습을 지도하였는바, 강습 받은이는 五十명 가량으로 대성황리에 마치었다。

개성에도 한글 강습
강습원이 二백여명

춘기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개성부(開城府) 유지의 발기로 한글 강습회를 열고,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조선어 선생 이강래씨를 초청하여 二회나 강습회를 지도하게 하였는데, 강습원은 전후 二백여명으로, 처음 있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조선어학회 총회
새 간사를 뽑아

우리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 지난 四월 二十 一일 하오 四시에 수표정(水標町) 四十二번지 본회 회관에서 제十 四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낸 일년동안 경과보고가 있었고, 본회를 대표할 새 간사(幹事)를 투표로 뽑았는데, 뽑힌이는 아래와 같았다。

간사장 이희승(李熙昇)
간사 이극로(李克魯)

프랑쓰 나라 파리에
김선기씨를 파송
언어학 연구를 목적

우리 조선어학회에서 이십여년간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여왔으나, 워낙 물질이 빈약한 우리 사회인지라, 이를 연구할만한 시설(施設)이 없어서 매양 한탄할뿐이러니, 이번에 우리 회원중 김선기(金善琪)씨를 언어학(言語學)을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프랑쓰 나라 파리에 파송하기로 작정하였다。

김선기씨는 당년 二十 八세의 청년 학자로 일즉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마치었고, 여러해동안 교육에 종사하였으며, 사년전부터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 편찬원으로 지금까지 근무하는중이며, 조선어학회에서 가장 추요한 자리에 있어 많이 활동하는중,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위원으로 시종여일하게 이에 힘씀이 더욱 많았다。이제 언어학 권공을 목격하고 멀리 파리로 떠나게 된것은 우리 한글계를 위하여 자못 촉망이 크다 할것이다。

한문 자전의 주해도
마춤법 통일안으로

일즉 수학가(數學家)로서 이름이 높던 이명칠(李命七)씨는 十여년간 고심연구하여 주문이 쇄도하여 발행한지 얼마 안되어 발서 재판하게 되었다。

간사 최현배(崔鉉培)

조선 말본 출판
최현배씨의 고심 결정

우리 회원 최현배씨는 한글을 수십년 전심 연구하여 오는터인데, 그 수확으로 이번에 중등조선말본을 출판하였다。국내 국외를 물론하고 한문 대자전(大字典)을 편찬하여 방금 인쇄중인데, 그 책의 조선말의 주해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의지하였으며, 또 지금 인쇄중에 있는 경성 대학당(大學堂) 발행의 일선대자전(日鮮大字典)도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의지하여 썼다。

부질없은 수작

윤치호(尹致昊)씨의 『新綴字法에 對하야』란 짤막한 논문이 지난 이월에 「青年」이란 잡지에 실렸더니, 또 사월에는 같은 문제의 글이 「正音」(異說派의 機關誌)이란 잡지에 실렸다。문제만 같은줄 알았더니, 글의 내용까지 한자도 다르지 않고 꼭 그대로다。그 금과옥조 같은 글이 한번만 나고 마는것이 아까워서 그리했는지, 「정음」 잡지가 원고난(原稿難)으로 폐지를 채우려던것인지, 그것 따질 필요가 없다。하여간 재탕은 재탕이다。이왕 그것이 재탕인바에 여기에도 한번 재탕을 하여볼가?

윤치호씨의 논문에 대하여 이윤재(李允宰)씨는 기독신보(基督申報)에 반박문을 썼다。너무 장문이다。아무리 재탕이지마는, 그것을 다 옮겨 쓸수는 없다。그중에 두어절만 뽑아서 써보자。

『……(上略) 一、첫재의 理由로 선생은 우리가 써오던 諺文의 綴字法은 漢文學者들의 賤待하여오던 大衆과 婦女들의 直覺的常識(컴먼 센스)이 無意識裏에 進化시킨것이다』라고 하였읍니다。(中略)

나는 이에 대하여 선생에게 한번 反問하고저 하노니, 無識階級의 사람들로서 우리글 쓰는데에 무슨 綴字法이 있읍니까? 서령 있다고 치자, 그 標準이 없고 規則이 없는 그것이 綴字法이 될수 있을가? 綴字法 spelling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일정한 法則이 없이 누구라도 이리저리 되는대로 그려 놓으면 그것을 綴字法이라고 할가? 결코 결코 그런것이 아닙니다。곧 우리가 사용하는 言語를 그 規定된 文法的 基礎 우에서 오직 일정한 標準을 세워서 여러 소리를 合理的으로 綴合하여 쓰는 법을 綴字法이라 名稱하는것입니다。그런데 이제 선생이 말슴하는 그 大衆과 婦女들의 쓰는것이란 아무 標準과 規則이 없이 各人各書로 混亂無狀한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그들의 쓰는 一例를 들면

바•불•멍•는•다(吃飯)
서•온•님•넌•다(着新衣)
이•지•비•흔•혜•기•인•나(此家有白餠乎)
그•는•항•무•니•음•넌•스•ㄹ•미•다(彼是無學問底人)

대개 이렇게들 씁니다。(傍點은 잘못된 字인것) 나의 實地 調査한바에 의지하면 一部 識者階級을 除하고는 거의 全數가 다 이와 같이 쓰는것을 봅니다。이것이야말로 선생이 말하는바 大衆의 直覺的 常識으로 된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우리글을 무슨 語法이니 하는것을 돌아볼것 없이 그저 쉽게 쓰기로만 주장한다면 그렇게 쓰기엔들 안될것이야 무엇 있겠읍니까마는, 아무리 쉬운편을 취한다 할지라도 어느 限度까지의 制限이 없지 못하리니, 이 制限이 곧 綴字法의 規定이 되는것입니다。그러므로 우에 것을 고쳐서

밥•을 먹•는•다。
새•옷 입•는•다。
이 집•에 헌 •띄•이 있•나。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로 쓰는것입니다。(傍點은 고친것) 세상에 어떠한 일이든지 막 되는대로 하기는 쉽지마는, 조그마한 制限이라도 받는것은 다들 어렵게 생각합니다。그리고 또 글이라 하는것은 世界에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生而知之로 절로 아는것이 아니요 다가르치고 배워서 되는것이어늘, 요만한 制限이라도 있는것을 꺼려

연희전문학교 입학시험 문제

조선어과 (한시반)

一、다음의 낱말(單語)의 뜻을 해석하고、그것을 가지고 각각 글월(文)을 지으라。

1、굽슬거리다。
2、거덜나다。
3、치르다。
4、치닥거리다。
5、치를 떨다。
6、덧세하다。
7、귀양。
8、러수。
9、하루살이。
10、秀才 (優越한 才能을 가진이란 뜻은 말고)

二、다음의 속담의 뜻 (直接的과 間接的의) 을 해석하라。

1、올창이적 생각을 못하나。
2、고기 갑(값)이나 하지
3、심사가 놀부라。
4、꿩 잡는것이 매라。
5、도련님은 당나귀가 제격이라。

三、作文(一面 一張에 限함) 될수있는대로 마춤법 (綴字法)을 바로하라。

題 專門敎育을 받는 朝鮮 靑年의 任務를 論하라

물음과 대답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 대하여(二)

【물음】 제一八항 「치」 받치다(支) 뻗치다。이 말들이 제一九항의 「잦히다」 「낮히다」의 예나 제九항의 「달히다」 「묻히다」의 예나에 속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앉히다」의 예와는 어떻게 다르며、또 「다치다(觸接)」와 「놓치다」와 같이 「닿치다」로 쓸가요?

【대답】 『뻗치다』와 『뻗히다』는 뜻이 다릅니다。『꾀리를 뻗치고 달아난다』의 『뻗치』는 『뻗』에 힘주는 뜻으로 『치』를 더함이고、『개미의 항렬이 다섯자 거리에 뻗히었다』의 『뻗히』는 「뻗」(他動詞)에 『히』를 더하여 뜻을 바꿈(自動詞)이외다。『치』가 붙은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치』가 붙은 말이면 붙기 전후의 뜻은 바뀜이 없으되、힘줌이 다를뿐입니다。가령 넘는다(自動)↓넘친다(自動)。날다(自動)↓날치다(自動)。뿌리다(他動)↓뿌리치다(他動)。엎다(他動)↓엎치다(他動)。뒤다(他動)↓뒤치다(他動)。밀다(他動)↓밀치다(他動)。『치』밖에 『히』나 다른 소리들이 붙은 말은 그것이 붙기 전과 후가 뜻이 바뀝니다。가령 잦는다(自動)↓잦힌다(他動)。앉는다↓앉힌다(他動)。먹는다(他動)↓먹힌다(自動)↓먹인다(他動)。잡는다(他動)↓잡힌다(自動)잡친다(他動)。『닿치다』로 씀이 옳겠다고 생각하나、컨엔 딴말보다 『다치다』로 쓸수도 있겠읍니다。『낮히다』『낮후다』는 같은 뜻의 다른 꼴이라 하겠으며、『낮후다』가 표준이 될것입니다。(김윤경)

【물음】 제 二六항 첫머리 『用語의』。用語는 用言과 같은 뜻으로 쓴것입니까。혹 오식된것입니까。

(정인승)

【대답】 「用言」의 잘못 박힌것입니다。(김윤경)

인사소식

▲우리 회원 신명균씨는 그새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한글의 교편을 잡고 있던바、지난 사월에 퇴직하고、단순히 조선 문화와 한글 운동에 전력하리라고。

▲우리 회원 박학규(朴學圭)씨는 이번에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에 한글 담임 교원으로 들어갔다。

▲우리 회원 이윤재씨는 연희전문학교를 퇴직하고 「한글」 잡지의 일을 보기에 더욱 힘쓰리라고。

서 할수 없다 하면 言語 文字에 대하여는 애초에 敎育이 있을 필요가 없을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글이 大衆의 直覺的 常識이 無意識裏에 進化시켜서 된것이라 함에 對하여 訝惑을 말지 아니합니다。(中略)

二、둘째의 理由로 선생은 『文物이 進步인지 退步인지 됨에 따라 生活이 複雜하여갈스록、우리의 文字는 可及的 複雜을 去하고 簡便에 就할것이다……』라고 하였읍니다。사실입니다。우리는 오늘날 文物이 進步됨을 인하여 온갖 物質界가 나날이 變遷하며、우리의 生活도 이에 따라 더욱더욱 簡便化하여감을 봅니다。곧 峨冠博帶가 斷髮洋服으로 變하고、傳人 驛馬가 郵便 電信으로 變하고、松明 蠟燭이 瓦斯 電燈으로 變하고、安車駟馬가 自動車 飛行機로 變하여、이렇듯 百般事爲가 다 簡便으로 향하지 아니함이 없읍니다。말하자면 現代 文化의 原動力이 되는 機械文明의 發達도 나날이 能率 最速度를 더하여 실상은 우리의 生活을 簡便化하여 주는것이 아닙니까。그런즉 우리의 文字도 될수 있는대로 簡便化하게 하여야 한다 함은 當然之當然이니 다시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우리글의 綴法이란 애초부터 매우 複雜하게 된것으로、우리는 이에 대하여 적지 않은 遺憾을 갖게 되는것입니다。나는 여기에 대하여 세가지 理由가 있다 합니다。(中略)

진실로 우리글에 대하여 複雜을 去하고 簡便에 就하게할 意量이 있을진대、이왕이면 선생은 좀 더 一步를 進하여 다만 今日에만 局限하지 말고 來後萬代 子孫을 위하여 어느때든지 한번 文字革命이 없지 못하리니、그 複雜한 從來의 綴法을 根本的으로 깨트리고、單純한 綴法 곧 單語本位의 橫書綴로 斷然 改革하자고 高調하심이 어떠합니까。이것이야말로 과연 선생이 簡便한 文字를 만들자는 眞意에 비추어서 이 以上 더 良好한 方策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先生은 이미 數十年間 信仰生活을 하여 왔으니、時時로 聖經을 읽으실것입니다。그 聖經에 쓴 綴法을 簡便한것이라고 보십니까。語音은 꼭 같으면서 글자만 달리 쓰는것이라든지、現時 語音에 없는 글자라든지、實用에 맞지 아니한 古語라든지 이러한것이 얼마나 많읍니까。(例는 略)이따위 캐캐묵은 옛날 좀먹은 책상 속에서나 찾아볼 歷史的 典故的 綴法은 오늘날 實用上에 도무지 소용이 없나니、天地가 開闢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이것을 簡便하다고 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묻노니、선생은 가장 簡便한 綴法을 主唱하는이로、또 全朝鮮 基督敎會의 重鎭으로 이에 생각이 徹底하시다면 일즉 大英聖書公會에나 耶蘇敎書會에나 其他 社會에 대하여 그따위 難澁한 綴字法을 쓰지 말자는 提議를 한번이라도 하여본 일이 있었읍니까? 이것은 적어도 三十餘年 以前에 하였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畢生의 努力으로 綴字法 統一案을 制定하여 한번 社會에 發表하매、敎育界에서나 宗敎界에서나 報道 機關에서나 다 이를 採用 實施하기로 되여、바야흐로 우리글 統一의 機運이 濃厚한 오늘에 와서 선생은 獨特히 이에 不滿을 가지며 이렇게 紙上에 發表까지 하였으니、그러면 선생은 在來式 곧 聖經 綴法에는 매우 滿足하였던것입니다。만일 이것이 선생의 眞意가 아니시다면 이 庸劣한 생각에는 혹시 禍心을 包藏한 어느 猜忌者들의 慫慂한것이나 아닌가 합니다。……(下略)』

재량도 너무 슴거우니 그만 두겠다。윤선생에게 미안함을 사례한다。

朝鮮學文庫設置

悠久한 歷史와 燦然한 文物을 有한 우리 朝鮮으로서 어찌하여 오늘날 文化的으로 이다지 落後하게 되었는가。爾來 우리네는 다만 事大에 昏醉하고 退嬰에 自安하는 그 尊華主義에 얽매었으며、또 挽近에 이르러는 날로 激變하여가는 混沌한 思想界에 우리로서 거의 歸趣를 定하기 어려우리만치 너무도 外來思想에 誘導되고 말았으니、이렇듯 우리는 自己沒却의 精神에 살아갈뿐 아닌가。그러므로 우리의 往昔의 文獻이란 餘地없이 湮滅에 돌아가고、現時의 名著도 永續으로 保存할 길 없다。이 어찌 有志人士의 慨嘆을 禁할바이랴。

우리는 이에 생각한바 있어、淺識과 微力을 不顧하고、朝鮮學 建設 基礎工役의 第一步로 朝鮮文庫를 設置하고 材料 蒐集부터 着手하기로 한것이다。이 巨創한 事業은 다만 우리 같은 幾個 讀書人의 意圖로서만 될것이 아니라、또한 滿天下 有志大家의 鼎力을 우르러지 아니할수 없는지라、이로써 社會에 對하여 幫助를 求하는바이다。이 事業의 完成은 오로지 이 趣意를 贊同하는 여러분에게 있을뿐이다。그러고 施惠의 物品은 文庫의 紀念物을 삼아 永久 不忘하기로 한다。

圖書蒐集의 標準

一、무슨 內容이거나 순 한글이나 한글 섞인 책。
二、무슨 말과 글로 썼거나 內容이 朝鮮에 關係된 책。
三、무슨 內容이거나 조선 사람이 外國말과 글로 지은 책。
四、조선 사람 쓴 글씨나 그린 그림。
五、外國 사람이 쓴 조선 글씨나 조선에 關하여 그린 그림。
六、무슨 말과 글로 썼거나 一般 語學書類。

朝鮮語學會

延禧專門學校敎授 崔鉉培先生 著

중등조선말본

菊判二百頁 紙質堅厚 脊布美本

定價 八十錢·送料 六錢

◇標準朝鮮語文法인제出現
◇最良의朝鮮語文法敎科書
◇朝鮮語硏究의基礎知識書
◇著者數十年專心硏究要領

朝鮮語學會의「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文法이다。무릇 朝鮮語에 뜻 있는이는 누구든지 배우라 읽으라。

◎注文은 京城花洞一二九의二 朝鮮語學會出版部로 振替京城壹〇參六番

月刊 學燈 雜誌

修養、學術、硏究를 爲한 朝鮮雜誌界의 새로운 存在。읽으라! 學燈을

訓要 十條……金允經
笑……蔡弼近
朝鮮語辭典은……李克魯
知識獲得對敎育……吳天錫
朝鮮地理……金道泰
哲學槪論……李載薰

民俗學、英文學、詩經、朝鮮文學、表現主義文學硏究、詩、隨筆、傳說、外來語辭典 科學과 常識等 滿載 ◇一部十錢◇

京城堅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月刊 아이생활 五月號 出來

朝鮮 少年少女 雜誌의 權威

一部 十錢 一年 一圓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아이생활社

◎代金을 보내실 때는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口座 京城壹〇參六番으로 하시오

◎支社에 對하여

「한글」은 오로지 우리글 統一 및 普及을 天職으로 삼는다。그런 同時에 天下에 同志를 求한다。우리글 統一 및 普及을 爲하여 誠이 있고 熱이 있는이면 누구든지 다 우리의 同志가 될수 있다。主要地마다 支社를 두어 同志와 서로 協力하고저 한다。支社 經營에는 別般 形式的 手續이 랄것이 없고、다만 이 事業에 協力할 決心만 있으면 그만이다。이에 뜻이 있는 이는 한번 書面으로 묻기를 바란다。

定價

一部	五錢
六個月	三十錢
一個年	五十五錢

代金은 반듯이 先金을 要함。

昭和九年五月十二日 印刷
昭和九年五月十四日 發行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編輯兼發行人 李允宰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人 金鎭浩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